

봄의 클래식 향연...한화 15년째 교향악 메세나 올린다

내달 1~18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2000년부터 후원...관람인원만 32만명 달해 '한화 팜&클래식' 지원 등 문화예술에 기여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2000년부터 15년째 후원하고 있는 '한화와 함께하는 2014 교향악축제'가 4월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매년 4월 전국의 오케스트라가 참가하는 교향악축제는 서울과 지방의 벽을 허무는 음악 축제의 장이다. 시·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정상급 클래식 축제다. 지난 25년 동안 교향악축제는 매년 초청 악단과 연주 프로그램, 협연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며 발전해왔다.



한화그룹이 15년째 후원 중인 교향악축제는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전국의 오케스트라가 참가해 다양한 협연 무대를 펼치는 2014 교향악축제는 4월1~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 한화

●임현정&부천필 교향악대...성시연·여자경 여성파워
1일 축제의 막을 올리는 악단은 KBS교향악단이다. 올해 초 KBS교향악단에 취임한 음악감독 요엘 레비의 지휘로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교향곡 3번 '영웅' 등의 작품이 연주된다. 18일 폐막 연주는 지휘자 임현정이 25년간 몸담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교향악대로 펼쳐진다. 이외에도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상임지휘자로 선임돼 화제를 모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단장 성시연,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여자경 등 두 명의 여성 지휘자들을 통해 클래식계의 여성파워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와 김대진이 이끄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협연도 클래식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화그룹 교향악축제 후원 '기업 메세나 성공사례'
한화그룹이 교향악축제를 후원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다. 이후 14년간 관람인원만 약 32만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누적참여

교향악단 수는 228개. 교향악축제는 국내 음악가들의 연주무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향악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내 클래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승진 예술의전당 예술본부장은 "기업이 예술 공연을 후원하는 일이 지금은 낯설지 않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후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화그룹이 큰 결단을 내려주었다"며 "메세나 활동은 단발성인 경우가 많은데 한화만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교향악축제 단독 후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업 메세나 활동의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메세나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화와 예술의전당의 오랜 파트너십은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모범적인 동반성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화 클래식' 도입 등 국내 클래식 저변확대 공헌
한화그룹은 교향악축제 후원 외에도 '한화 팜&클래식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 및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품격 클래식 공연인 '한화 클래식'을 도입했다. 바흐 음악의 세계적 권위자인 지휘자 헬무트 킬링과 정통 바로크음악 연주단 '바흐 플레기움 슈투트가르트'를 초청해 음악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한화의 메세나 활동은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겠다는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화는 문화 나눔 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2006년과 2011년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문화서울후원상에서 문화나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연 회장은 교향악축제 후원 10주년을 지난 2009년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종신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주요명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연주일	교향악단	지휘자	협연자
4. 1(화)	KBS교향악단	요엘 레비	Vn. 최예은
2(수)	울산시립교향악단	김홍재	Pf. 최희연
3(목)	부산시립교향악단	리 신재호	Hr. 김영철
4(금)	강남실용음악대학교 오케스트라	서현석	Pf. 유영욱
5(토)	충남교향악단	윤승업	Va. 최은식
6(일)	전주시립교향악단	강석희	Vn. 김남윤, Vc. 박상민
7(월)	청주시립교향악단	유 광	Vc. 김민지
8(화)	경상북도립교향악단	박성환	트리오 제이드(Vn. 박지윤, Vc. 이정란, Pf. 이효주)
9(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스코트 유	Cl. 채재일
10(목)	대전시립교향악단	김노상	Pf. 유미정
11(금)	인천시립교향악단	김남세	Vn. 신아라
12(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성시연	Pf. 김혜진
13(일)	원주시립교향악단	박영민	Pf. 안종도
14(월)	광주시립교향악단	이현세	Vn. 김응수
15(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자경	Ft. 손유민
16(수)	코리안프로시니오케스트라	이병욱	Pf. 허승연
17(목)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Pf. 보리스 길트버그(Boris Giltburg)
18(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현정	Vn. 백주영



KB국민카드, 청소년·노인복지·환경·글로벌 테마 봉사활동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 확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은 봉사'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KB국민카드(www.kbcard.com·사장 김덕수)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 신입사원들은 사회생활의 시작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으로 시작한다. KB국민카드 신입사원 35명은 3월15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강남직업재활센터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가졌다. KB국민카드의 청소년·노인복지·환경·글로벌 등을 테마로 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KB국민카드

을 가졌다. KB국민카드는 신입사원들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입사원과 장애인 이 한 조를 이뤄 도시락 만들기, 놀이공원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평소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사회공헌 활동
KB국민카드는 청소년, 노인복지, 환경, 글로벌을 사회공헌 4대 메인 테마로 정하고 'YES, for Good'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임직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분야는 KB국민카드의 핵심 사회공헌 사업 분야다.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이해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 합리적인 소비 마인드를 함양시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국민카드의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은 한 학급당 임직

원 강사 2명이 참여해 밀착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
아울러 환경, 노인복지, 글로벌 분야 등에서도 '국민생활의 힘'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KB금융지주의 '탄소중립의 숲' 환경보호 프로그램 및 '도림복지 식수 물주기 봉사활동', '우리 문화재 문묘 가꾸기' 봉사활동 등을 펼칠 수 있다.
노인복지에서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봉사활동을 한다. 전국 25개 영업점 200명의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 중이다. 또 콜센터의 전화상담 재능을 활용해 전국의 독거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씩 안부전화하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 130명이 참여한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Dream Day Camp'를 진행한다.
원승민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www.blacklion.co.kr

국내최초 옥 자석 무릎 보호대

2014년형 신 무릎보호대 출시, 무릎 잡아주는 역할 강화 보호대 차고도 활동성 및 역동성 뛰어나 모든 활동 완벽

무릎 보호대 차고 봄나를 케어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와 이미 들과 산은 봄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나물을 보고 아이쿠 다리야! 하며 그냥 주저 않는다. 하지만 옥자석 무릎보호대를 하고 부터는 자유자재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부드러워 졌다."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말한다. 무릎보호대가 꼭 산에 다닐때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동우회 회원들에게도
등산, 사이클, 축구, 농구, 배구 등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일수록 그만큼 무릎의 부담감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 악화되기 전에 무릎을 위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등산 할때 장시간 산행을 하면 무릎이 시큰한 적이 있어 연골이 많이 닳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 그런데 옥 자석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서부터 훨씬 산행하기가 수월해졌다.

국내 최초로 옥 자석 무릎보호대 출시해 인기절정
작년에 이어 2014년형 신모델 블랙라이언 옥 자석 무릎 보호대는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강화시켜 역동적이고 활동성을 극대화시켜 격렬한 운동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던 많은 스포츠 매니아도 등산을 즐기는 산악인들에게도 딱 맞는 아이템이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품질과 내구성을 강화해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제품명 블랙라이언 옥자석 무릎보호대
회원특가 1세트(2개) ₩ 55,000 2세트(4개) ₩ 110,000 → ₩ 100,000
여의도백화점 1층 직영점 오픈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중 Tel 02-831-2128

제품심선 1544-0247